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전시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과 함께 6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II에서 특별전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를 개최한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지역 공시립 박물관의 소장품을 서울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K-Museums 초청 특별전' 첫 번째인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전에서는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강원유형문화재 152호)'을 비롯해 일반에게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100여점이 선보인다. 판화는 인쇄와 화화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흔히 '인쇄문화의 꽃'으로 불린다. 이번 전시는 옛 판화의 역사와 쓰임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부 세상을 밝히다_지식', '2부 소망을 담다_염원', '3부 멋을 더하다_꾸밈'으로 구성됐다.

세상을 밝히다_지식

1부 '세상을 밝히다_지식'에서는 지식과 정보

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인쇄매체로서 판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유교 덕목의 실천과 보급을 위해 간행된 것으로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전해지는 '오률행실도 목판', 아미타불의 자비를 찬양하고 염원을 외워 정토왕생을 권하는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강원유형문화재 152호)', 효도의 경전으로 널리 읽혀졌던 '홍복사판 목련경', '정희대왕대비 발원 번상도' 등 어려운 내용을 그림과 함께 풀어 대중에게 전달한 목판과 판화를 소개한다.

소망을 담다_염원

2부 '소망을 담다_염원'에서는 인간의 소망을 담아낸 판화들을 소개한다.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인 관음을 표현한 '선암사 오도자 관음보살', '천수천안관음도'처럼 우리나라 대중불교 확장에 영향을 준 판화도 볼 수 있다. 또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가져오는 '삼재 부적', '호작도' 등 선조들의 소망과 정성이 담긴 판화들도 함께 전시된다.

멋을 더하다_꾸밈

3부 '멋을 더하다_꾸밈'에서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널리 이용된 문양판화와 대중예술로서의 회화판화가 소개된다. 책표지를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던 능화판화, 꽃과 새, 길상문자 등의 문양을 찍은 이불보, 시전지 같이 생활에 멋을 더한 판화, 사군자를 소

재로 한 화훼도의 유행을 엿볼 수 있는 '목죽도', 다색판화로 제작된 '십장생도' 판화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회화에 큰 영향을 준 중국의 화보인 '개자원화전' 초간본, 일본 히로시게의 '아마나시의 사루하시 풍경'은 최초 공개 자료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눈길을 끌 만 한데, 우리 판화와 중국, 일본 삼국의 판화를 비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판화 인출·판각 시연·국제학술대회 7월 5일 개최

이번 전시에서는 판화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목판을 종이에 찍어 내는 인출 및 판각 시연과 국제학술대회도 진행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일요일마다 전시장에서 한국 판화의 인출 시연이 펼쳐진다. 또한 오는 7월 5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과 로비에서는 한국과 일본 판화의 비교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와 교토 운소도의 우키요에 판각과 인출 시연이 열릴 예정이다.

원주 명주사 소장품 서울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국립민속박물관은 지역 공·사립박물관의 소장품을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장에서 소개하는 'K-Museums 초청 특별전'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으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옛 판화를 수집 연구하고 널리 소개하는 데 앞장서 온 사립박물관이다.

이번 전시는 원주에 소재해 있어 일반인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소장품을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세계 인쇄문화 속에 화려하게 꽃피웠던 우리 옛 판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옛 판화가 지닌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의 면모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종료 후에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순회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작품 소개

오륜행실도 목판



-조선 1797년(정조 21)에 이병모 등이 왕명에 따라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해 편찬한 목판의 일부이다. 판목에는 백제 도미부인과 고려 우왕 때 최씨의 열녀이야기를 새겼다.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오륜행실도 목판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화로의 외곽보호용으로 변형됐다.

정희대왕대비 발원 변상도



-조선시대의 불교 변상도로 이보다 앞서 제작된 광평대군 신씨발원변상도(1459)는 일본 사례사에 소장돼 있어 한국 소장본으로는 매우 뛰어난 판본 가운데 하나다. 특히 조선시대 8대 각수 중 한 명인 홍가미치서명이 들어가 있어 흥미롭다.

목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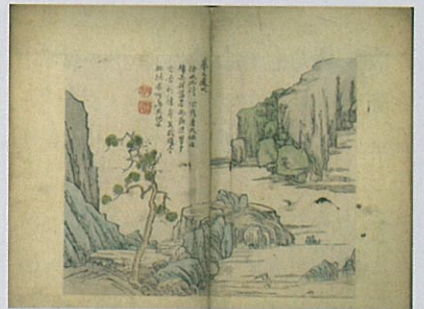
-조선 1584년(선조17) 승가산 흥복사 간행본으로 '대목건련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효도의 경전으로 널리 독송되었다. 목련경은 설화성이 풍부한 경전으로 여기에 실린 18점의 판화는 압축적인 도상과 군더더기 없는 각선으로 매우 기하학적이다. 한국 판화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



-선조 5년(1572) 월악산 덕주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고려 양식을 답습하는 등 당시의 서예와 판화, 미술 양식 변천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을 설하고, 그러한 정토에 왕생하는 길이 아미타불을 칭명염불(稱名念佛)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강원유형문화재 152호다.

개자원화전



-중국 청나라 초기 1679년 화가 왕개왕시왕 일 3형제가 편찬한 화보다. 물감과 채색법, 산수를 그리는 방법, 이전 화가들의 필법, 벌레와 짐승화초를 그리는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입수되어 한국 회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